

女高生の 性에 대한 知識, 態度, 經驗 및 性教育 要求

김 언 회·정 문 숙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목 차

I. 서 론	V. 고 찰
II. 조사대상 및 방법	VI. 요 약
III. 대상 및 방법	참고문헌
IV. 성 적	

I. 서 론

인간의 발달과정으로 볼 때 청소년기는 사춘기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의 약 10년을 포함하며 대략 11세에서 20세 사이의 연령층이다. 현대에 와서 이 시기는 사회적 변화를 늦게 경험하게 된다고 보아 위기 상황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실제로 산업사회 속에서 경제체제의 변화, 학교 교육의 보편화와 형식교육의 연장 및 결혼 시기의 지연 등으로 이와같은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성인역할의 연기로 인하여 청소년은 어떠한 사회적 지위도 보유하기 힘들게 된 것에 연유한다(김계숙, 1989).

또한 홍창남(1984)과 이귀현(1986)은 청소년기를 격변과 시련의 시기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적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화를 겪으며, 신체적인 급성장과 3차 성징의 발현, 성의 자각과 이성에 대한 관심의 고조, 불안, 초조 및 성충동 등으로 심리적인 동요가 심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며, 성생리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이나 불건전한 태도를 갖게 될 수 있으며, 충동적인 행위의 가능성이 많은 시기라 하였다.

그리고 Carrela와 Calderone(1983)은 성의 개념을 인간의 총체적인 면으로 논의하며, 이 총체적인 면에는 소년과 소녀 그리고 여성과 남성 등에 관계되는 것과

인생의 역동적 변화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하였다. 특히 총체적 기능으로 볼 때 성은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발달과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간의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및 문화적 삶의 변수에 관계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될 때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성문제들 중 미혼모와 사생아의 증가, 인공유산으로 인한 모성의 건강 위해와 임신소모, 성도덕 불확실로 인한 문란, 성과 관련된 건강문제 등(윤귀임, 1982; 양미선, 1985)은 체계적인 교육이나 지도가 부족하거나 없을 때 청소년 시절부터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이다.

특히 여고생들은 여성의 일생을 단계별로 나누어 볼 때 왕성한 생산단계인 성숙기를 준비하는 사춘기에 해당하는 15세에서 19세의 연령층으로서 장차 2세 국민을 배태하고 양육하게 될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은 또한 장래 국민의 건강을 가름한다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여고생들에게 올바른 성 윤리관과 도덕관을 길러주며, 실제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교육지도 방안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성교육의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아주 긴급하다고 본다.

최근 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며, 교육의

필요성,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많은 논의와 연구보고(원대식, 1980)가 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 청소년기 성교육에 대한 적절한 내용과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에 의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등학교 학생의 성지식 수준은 낮거나 정확하지 못했으며, 성에 대하여 비교적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고(김한경 등, 1988), 다른 선행연구(김성훈, 1985; 방미라, 1990)에서도 중등학교 성교육은 단편적이고 소극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빠른 사회변천과 각종 매체의 발달에 의한 성 정보의 범람 및 성적 자극의 심화로 성의식이 개방적이며 적극적으로 되어가는 시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여고생에게 올바른 성지식과 건전한 태도를 유도하고, 불건전한 성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조기에 체계적인 성교육의 실시가 바람직하다 하겠다.

생활환경, 교육환경 및 교육목적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 3군의 학교 즉, 앞으로 대학입학을 지향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졸업후 직장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실기위주의 교육을 받는 실업계 고등학교,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생산성 향상과 근무의욕 고취 등의 목적으로 산업체 근로자들이 재학하는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의 학생집단 간에는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경험 정도와 성교육에 대한 요구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 집단의 특성에 따른 교육 계획 및 실시 방향이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성교육이나 성문제에 대한 지식과 태도 조사는 다수 있으나, 성경험 조사는 그 특성상 매우 조사하기 힘들 뿐 아니라, 자료의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성문제에 대하여 학생집단의 특성에 따라 시행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문계, 실업계 및 산업체 부설 여자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성문제와 관련된 지식, 태도 및 성경험 정도와 성교육에 대한 요구 정도를 조사하여 각급 학교별 성교육 내용선정 및 담당교사의 지도와 상담계획에 도움을 줄 자료를 얻고자 시도되었다.

II.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1992년 4월 20일 부터 1992년 4월 25일까지 6일간 대구직할시에 소재하는 인문계, 실업계 및 산업체 부설 여자고등학교를 각 2개교씩 총 6개 학교를 임의 선정하여 2학년 2학급씩 학생 60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당국의 동의를 얻은 후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와 동일한 필기도구를 배부한 후 기재요령을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이 자의로 기재하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회수 후 기록이 미비한 8매의 설문지를 제외한 실제 응답학생은 599명이었다. 조사도구는 학교보건 업무를 위한 참고자료(노미연 등, 1988)중 성문제 관련내용과 선행연구(윤귀임, 1982; 양선희, 1983; 김귀희, 1986; 방미라, 1990; 김상옥, 1991)를 참조하여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수정 보완한 후 사용하였다.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주 성장지, 주거형태, 가계 총수입, 부모의 교육정도,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의 직업 등이며, 성에 대한 일반적 지식정도는 월경, 성생리, 임신과 출산, 몽정, 성병, 성병관리, 가족계획과 관련된 지식을 묻는 12개 항목에 “그렇다, 아니다”에 표기하도록 하여 최저 0점, 최고 12점을 주었으며, 평균치를 구하였다. 또 지식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0~4점을 “하”, 5~8점을 “중”으로, 9~12점을 “상”으로 분류하였다.

성에 대한 태도는 성윤리 5문항, 이성교제 2문항, 인공유산 1문항 등으로 긍정, 그저그렇다, 부정의 내용에 표기하도록 하여 긍정 3점, 그저그렇다 2점, 부정 1점을 주어, 성윤리 5문항은 11~15점을 긍정, 6~10점을 그저그렇다, 0~5점을 부정으로 분류하고, 이성교제 2문항에서는 5~6점을 긍정, 3~4점을 그저그렇다, 1~2점을 부정으로, 인공유산 1문항은 긍정 3점, 그저그렇다 2점, 부정 1점 순으로 분류하였다.

성경험 항목으로 자위행위, 입맞춤, 애무, 성교, 임신경험 유무로 경험률을 알아 보았고 일반적 특성, 지식 및 태도에 따른 성교 경험률을 조사하였다. 성교육 요구는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내용의 만족도와 성교육 필요성 및 요구하는 내용, 실시시기에 대한 내용이며, 대상자의 명칭은 인문계, 실업계 및 산업체 고등학교를 A, B, C군으로 구별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인문계, 실업계 및 산업체 고등 여고생별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상태를 백분율과 χ^2 -test를 실시하였다.

III. 성 적

조사 대상 여고생의 연령분포는 17세가 A군에서 78.9%, B군이 47.3%, C군이 49.5%였다. 주 성장지는 A군의 77.4%, B군의 82.0%가 대구였고, C군은 경북이 77.5%였다. 주거형태는 부모와 동거가 A군 96.8%, B군 97.1%였고, C군은 기숙사가 88.7%였다. 가계 총 수입은 60만원 이하는 C군에서는 37.7%였고, A, B군은

61~120만원이 각각 45.8%, 44.9%였다.

부의 교육 정도는 A, B, C군 모두 중, 고졸이 각각 57.9%, 79.0%, 54.9%로 가장 많았고, 모의 교육 정도는 A군과 B군은 중, 고졸이 각각 71.7%, 59.5%로 가장 많았고, C군은 국졸이 45.6%였다. 부모의 결혼 상태는 동거인 경우가 A군이 92.6%, B군이 84.4%, C군이 60.8%로 가장 많았고, C군에서는 재혼이 17.6%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은 상공업이 A, B군에서 각각 33.7%, 36.6%로 가장 많았고, C군은 농어업이 47.1%였다. 이와 같이 각 군과 일반적인 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A군		B군		C군		계	
	인수	%	인수	%	인수	%	인수	%
연령								
16세 이하	33	17.4	16	7.8	33	16.2	82	13.7**
17세	150	78.9	97	47.3	101	49.5	348	58.1
18세이상	7	3.7	92	44.9	70	34.3	169	28.2
주 성장지								
대구	147	77.4	168	82.0	46	22.5	361	60.3**
경북	43	22.6	37	18.0	158	77.5	238	39.7
주거형태								
부모와 동거	184	96.8	199	97.1	16	7.9	401	67.0**
자취, 하숙	5	2.6	6	2.9	7	3.4	18	3.0
기숙사	1	0.6			181	88.7	180	30.0
가계 총수입								
60만원 이하	15	7.9	43	21.0	77	37.7	135	22.5**
60~120만원	87	45.8	92	44.9	67	32.8	246	41.1
121만원 이상	81	42.6	68	33.1	46	22.5	195	32.6
무응답	7	3.7	2	1.0	14	7.0	23	3.8
부의 교육 정도								
무학	2	1.0	9	4.4	13	6.3	24	4.0**
국졸	19	10.0	31	15.1	75	36.8	125	20.9
중·고졸	110	57.9	162	79.0	112	54.9	384	64.1
대졸	59	31.1	3	1.5	4	2.0	66	11.0
모의 교육 정도								
무학	1	0.5	2	1.0	21	10.3	24	4.0**
국졸	39	20.5	80	39.0	93	45.6	212	35.4
중·고졸	135	71.1	122	59.5	90	44.1	347	58.0
대졸	15	7.9	1	0.5	-	-	16	2.6

	A군		B군		C군		계	
	인수	%	인수	%	인수	%	인수	%
부모의 결혼상태								
동거	176	92.6	173	84.4	124	60.8	473	79.0**
이혼, 별거	4	2.1	5	2.4	16	7.8	25	4.2
사별	6	3.2	25	12.2	25	12.3	56	9.3
재혼	3	1.6	2	1.0	36	17.6	41	6.8
무응답	1	0.5	-	-	3	1.5	4	0.7
계	190	100.0	205	100.0	204	100.0	599	100.0
부모의 직업(복수응답)								
공무원	43	22.2	12	5.8	8	3.9	63	10.5**
상공업	64	33.7	75	36.6	29	14.2	168	28.0
농어업	7	3.7	5	2.4	96	47.1	108	18.0
회사원	37	19.5	37	18.0	27	13.2	101	16.9
노동	8	4.2	24	11.7	25	12.3	57	9.5
기타	48	25.3	72	35.1	32	15.7	152	25.4
계	207		225		217		649	108.3

** : P<0.01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지식 평균

	A군		B군		C군		
	인수	Mean±SD	인수	Mean±SD	인수	Mean±SD	
연령							
16세 이하	33	9.4±1.2	16	9.2±1.2	33	8.8±1.9**	
17세	150	9.5±1.3	97	9.3±1.3	101	8.7±1.3	
18세 이상	7	9.6±1.1	92	9.4±1.2	70	8.9±1.6	
주거형태							
부모와의 동거	184	9.5±1.3	199	9.3±1.3	16	8.8±1.8**	
자취, 하숙	5	9.2±1.6	6	9.1±1.0	7	8.0±1.8	
기숙사	1	10.0±0	0		181	8.8±1.5	
모의 교육정도							
무	1	6.0±0	2	9.5±0.7	21	11.0±0 **	
국졸	39	9.5±1.1	80	9.2±1.4	93	8.8±2.2	
중·고졸	135	9.5±1.3	122	9.5±1.2	90	8.3±0.8	
대졸	15	9.5±1.0	1	10.0±0	0		
부의 교육정도							
무	2	7.5±2.1	9	9.9±1.0	13	8.7±1.0**	
국졸	19	9.6±1.2	31	9.4±1.4	75	8.8±3.3	
중·고졸	110	9.5±1.3	162	9.3±1.3	112	8.9±1.2	
대졸	59	9.6±1.2	3	10.7±0.6	4	7.0±0	
전체	9.26±1.3	190	9.5±1.3	205	9.3±1.3	204	8.8±1.5**

**P<0.01

조사대상 여고생의 성지식 평균은 9.3%이었고, A군은 9.5, B군은 9.3, C군은 8.8이었고 연령별로는 18세 이상에서 A, B, C군 각각 9.6, 9.4, 8.9로 제일 높았다. 주거형태별로는 부모와의 동거가 A군 9.5, B군 9.3, C군 8.8이었다. 부의 교육 정도는 A군의 국졸과 대졸이 평균 9.6, B군은 대졸이 10.7, C군은 중·고졸이 8.9였다.

각 대상자의 성지식 평균과 일반적 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표 2).

대상자의 성지식과 일반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보면, 성지식을 상, 중, 하로 나누었을 때 지식이 상인 경우 A군이 78.4%로 가장 높았다. 성지식이 상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18세 이상의 대상자

표 3. 대상자의 성지식과 일반적 특성과의 관련성

	성 지 식					
	상(435명)		중(162명)		하(2명)	
	인수	%	인수	%	인수	%
학교별						
A군	149	78.4**	41	21.6	-	-
B군	159	77.6	46	22.4	-	-
C군	127	62.2	75	36.8	2	1.0
연령						
16세 이하	58	70.7	24	29.3	-	-
17세	246	70.7	102	29.3	-	-
18세 이상	131	77.5	36	21.3	2	1.2
주 성장지						
대구	278	77.0**	83	23.0	-	-
경북	157	66.0	79	33.2	2	0.8
주거형태						
부모와 동거	309	77.1	90	22.4	2	0.5
자취, 하숙	11	61.1	7	38.9	-	-
기숙사	115	63.9	65	36.1	-	-
부의 교육정도						
무학	18	75.0	4	16.7	2	8.3
국졸	82	65.6	43	34.4	-	-
중·고졸	280	72.9	104	27.1	-	-
대졸	55	83.3	11	16.7	-	-
모의 교육정도						
무학	13	54.2	9	37.5	2	8.3
국졸	147	69.3	65	30.7	-	-
중·고졸	261	71.5	86	28.4	-	-
대졸	14	87.5	2	12.5	-	-
부모의 결혼상태						
동거	362	76.5	111	23.5	-	-
이혼, 별거	73	57.9	51	40.5	2	1.6

** P<0.01

중 77.5%가 성지식이 상이었다. 주 성장지별로는 대구인 경우 77.0%가 지식이 상이였고 경북지역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그외 주거형태, 부모의 교육정도, 부모의 결혼상태와 성지식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3).

내용별 성지식 정도를 보면 임신에 관한 문항이 정답률

표 4. 내용별 성지식정도

내 용	정 답		오 답	
	인수	%	인수	%
월경	416	69.4	183	30.6
배란	532	88.8	67	11.2
임신	571	95.3	28	4.7
분만	540	90.2	59	9.8
임신과 월경과의 관계	23	3.8	576	96.2
임신기간	479	80.0	120	20.0
몽정	423	70.6	176	29.4
사정	515	86.0	84	14.0
성병1	568	94.8	31	5.2
성병2	523	87.3	76	12.7
성병3	230	38.4	369	61.6
가족계획	102	17.0	497	83.0

95.3%로 가장 높았고 임신과 월경과의 관계에 관한 문항이 정답률 3.8%로 가장 낮았다(표 4).

대상자의 성에 대한 태도를 보면 성윤리에 대한 문항은 긍정적 태도가 A군 6.4%, B군 8.2%, C군 6.8%였고, 그외 그렇다가 A군 92.1%, B군 85.9%, C군 84.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는 긍정이 A군 30.6%, B군 34.1%, C군 22.2%로 나타났다. 인공유산에 대한 태도로서 낙태는 최악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A군 1.6%, B군 7.3%, C군 5.8%였고, 긍정적인 태도는 A군 29.5%, B군 34.1%, C군 26.9%였다(표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을 보면 연령별 성윤리에 대한 태도는 18세 이상이 7.7%로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률이 높았다. 주 성장지별로는 대구보다 경북이 7.1%로 더 높은 긍정을 보였다. 주거형태별로는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4.3%의 긍정을 보였고, 기숙사가 8.2%로 긍정률이 높았다.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긍정률은 무학인 경우 각각 12.5%, 8.3%로 제일 높았다. 부모의 결혼상태는 동거가 5.5%, 동거않는 경우가 5.6%로 긍정률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에서는 주 성장지가 대구인 경우가

표 5. 대상자의 성에 대한 태도

	A군		B군		C군	
	인수	%	인수	%	인수	%
성윤리						
긍정	12	6.4	17	8.2	14	6.8*
그저 그렇다	175	92.1	176	85.9	172	84.4
부정	3	1.5	12	5.9	18	8.8
이성교제						
긍정	58	30.6	70	34.1	45	22.2*
그저 그렇다	129	67.9	132	64.5	157	76.9
부정	3	1.5	3	1.4	2	0.9
인공유산						
긍정	56	29.5	70	34.1	55	26.9*
그저 그렇다	131	68.9	120	58.6	137	67.3
부정	3	1.6	15	7.3	12	5.8
계	190	100.0	205	100.0	204	100.0

*P<0.05

표 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애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

항 목	성윤리에 대한 태도						계
	긍 정		그저 그렇다		부 정		
	인수	%	인수	%	인수	%	
연령							
16세 이하	4	4.9	72	87.8	6	7.3	82
17세	16	4.6	310	89.1	22	6.3	348
18세 이상	13	7.7	141	83.4	15	8.9	169
주 성장지							
대구	16	4.4	317	87.8	28	7.8	361
경북	17	7.1	206	86.6	15	6.3	238
주거형태							
부모와 동거	17	4.3	351	87.9	31	7.8	399
자취, 하숙	1	5.6	17	94.4			18
기숙사	15	8.2	155	85.2	12	6.6	182
부의 교육정도							
무학	3	12.5	17	70.8	4	16.7	24*
국졸	11	8.8	109	87.2	5	4.0	125
중·고졸	18	4.7	337	87.7	29	7.6	384
대졸	1	1.5	60	90.9	5	7.6	66
모의 교육정도							
무학	2	8.3	20	83.4	2	8.3	24
국졸	14	6.6	185	87.3	13	6.1	212
중·고졸	16	4.6	304	87.6	27	7.8	384
대졸	1	6.3	14	87.4	1	6.3	16
부모의 결혼상태							
동거	26	5.5	414	87.5	33	7.0	473
이혼, 별거	7	5.6	109	86.5	10	7.9	126
계	33		523		43		599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							
주 성장지							
대구	7	1.9	237	65.7	117	32.4	361*
경북	1	0.4	181	76.1	56	23.5	238
계	8		418		173		599
인공유산에 대한 태도							
연령							
16세 이하	21	25.6	58	70.7	3	3.7	82*
17세	94	27.0	239	68.7	15	4.3	348
18세 이상	66	39.1	91	53.8	12	7.1	169
계	181		388		30		599

*P<0.05

1.9%의 긍정을 보였다. 연령별 인공유산에 대한 태도에 있어 긍정율은 18세 이상에서 39.1%, 17세 27.0%, 16세 이하 25.6%였다(표 6).

대상자의 초경연령은 A군은 11~13세가 57.4%로 가장 많았고, B군은 14~16세가 62.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C군도 14~16세가 71.1%로 가장 많았다. 자위행위에 대한 인지는 A군 57.4%, B군 49.3%, C군 45.1%였다. 자위행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A군

20.5%, B군 18.0%, C군 24.5%였다(표 7).

대상자의 이성교제에서는 어떤 형태이든 경험을 가진 자가 68.9%였으며, 전혀 어떤 종류의 경험도 가지지 않았던 자가 31.1%였다. 알고 인사하는 사이는 43.7%, 자주 만나는 정도가 23.4%, 손을 잡거나 팔짱끼기가 22.9%였으며, 성교 경험이 14.4%나 되었다. C군이 A, B군에 비해 이성교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표 7. 대상자의 초경연령 및 자위행위 경험

	A군		B군		C군	
	인수	%	인수	%	인수	%
초경연령						
10세 이하	3	1.6	1	0.5	-	-**
11~13세	109	57.4	68	33.2	48	23.5
14~16세	73	38.4	128	62.4	145	71.1
17세 이상	5	2.6	8	3.9	11	5.4
자위행위 인지						
안다	109	57.4	101	49.3	92	45.1
모른다	79	41.6	97	47.3	106	52.0
무응답	2	1.0	7	3.4	6	2.9
자위행위 경험						
있다	39	20.5	37	18.0	50	24.5*
없다	72	37.9	71	34.6	47	23.0
모른다	79	41.6	97	47.4	107	52.5
계	190	100.0	205	100.0	204	100.0

*P<0.05 **P<0.01

표 8. 대상자의 이성교제경험 항목별 분포

	A군(190명)		B군(205명)		C군(204명)		계	
	인수	%	인수	%	인수	%	인수	%
(복수 응답)								
알고 인사하는 사이	89	46.8	96	46.8	77	37.7	262	43.7**
자주 만나는 정도	27	14.2	49	23.9	64	31.4	140	23.4
손을 잡거나 팔짱끼기	21	11.1	55	26.8	61	29.9	137	22.9
포옹	7	3.7	29	14.1	44	21.6	80	13.4
입맞춤	8	4.2	31	15.1	38	18.6	77	12.9
애무	6	3.2	12	5.9	26	12.7	44	7.3
성행위	13	6.8	23	11.2	50	24.5	86	14.4
경험없다	73	38.4	59	28.8	54	26.5	186	31.1

**P<0.01

대상자의 성행위 경험 연령은 16세 이상이 7.1%이었고, 12세 이하에서는 2.0%나 되었다. 경험동기는 타의적이 8.9%이었고 자의적인 경우도 3.5%나 되었다. 경험 대상은 남자 친구가 5.8%로 제일 높았고 평소 안면있는 사람이 그 다음 순으로 4.8%였다. 임신을 경험한 사람은 0.5%였다(표 9).

대상자의 성행위 경험유무에 따른 성에 대한 태도를 보면, 성윤리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성행위 경험자중 9.3%였고, 경험 없음에서는 6.8%였다.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는 긍정이 성행위 경험자중 27.9%였고 경험 없음에서는 29.0%였다.

인공유산에 대한 태도는 긍정이 성행위 경험자 중 25.6%였고, 경험 없음 중에서는 31.0%였다(표 10).

대상자의 초경시작 연령을 11~13세로 기준했을 때 자위행위 경험자는 39.7%, 자위행위 경험이 없는 사람은 37.0%였다. 성행위 경험은 자위행위 경험자가 22.2%로 무경험자 11.6%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1$)(표 1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행위 경험과의 관련성을 보면 연령별 성행위 경험률은 16세 이하가 18.3%로 18세 이상 14.2%에 비해 높았다. 주성장지가 경북인 경우 18.9%로 대구 11.4%에 비하여 성행위 경험률이 높았

표 9. 대상자의 성행위 경험연령, 동기, 대상 및 임신경험 유무

	A군		B군		C군		계	
	인수	%	인수	%	인수	%	인수	%
경험연령								
12세 이하	—	—	4	2.0	8	3.9	12	2.0*
13~15세	5	2.6	7	3.4	12	5.9	24	4.0
16세 이상	6	3.2	9	4.4	27	13.2	42	7.1
무응답	2	1.0	3	1.4	3	1.5	8	1.3
경험없다	177	93.2	182	88.8	154	75.5	513	85.6
경험동기								
자의적	5	2.6	4	2.0	9	4.4	18	3.5
타의적	6	3.2	16	7.8	34	16.7	56	8.9
무응답	2	1.0	3	1.4	7	3.4	12	2.0
경험없다	177	93.2	182	88.8	154	75.5	513	85.6
경험대상								
남자친구	2	1.0	10	4.9	23	11.3	35	5.8
가족	2	1.0	2	0.9	5	2.5	9	1.5
친척	—	—	—	—	1	0.5	1	0.2
전혀 모르는 사람	1	0.6	4	2.0	3	1.5	8	1.3
평소 안면있는 사람	6	3.2	6	3.0	16	7.8	28	4.8
무응답	2	1.0	1	0.4	2	0.9	5	0.8
경험없다	177	93.2	182	88.8	154	75.5	513	85.6
임신경험								
유	—	—	1	0.5	4	2.0	5	0.5
무응답	1	0.5	—	—	5	2.4	6	0.6
경험없다	189	99.5	204	99.5	195	95.6	588	98.9
계	190	100.0	205	100.0	204	100.0	599	100.0

* $P<0.05$

표 10. 대상자의 성행위 경험유무에 따른 성에 대한 태도

	성행위경험 유		성행위경험 무	
	인수	%	인수	%
성윤리				
긍정	8	9.3	35	6.8
그저 그렇다	71	82.6	452	88.1
부정	7	8.1	26	5.1
이성교제				
긍정	24	27.9	149	29.0
그저 그렇다	61	70.9	357	69.5
부정	1	1.2	7	1.5
인공유산				
긍정	22	25.6	159	31.0
그저 그렇다	58	67.4	330	64.3
부정	6	7.0	24	4.7
계	86	100.0	513	100.0

표 11. 대상자의 자위행위 경험 유무와 초경시작 연령 및 성행위

	자위행위경험 유		자위행위경험 무	
	인수	%	인수	%
초경시작 연령				
10세 이하	—	—	4	0.8
11~13세	50	39.7	175	37.0
17세 이상	15	11.9	9	1.9
성행위				
유	28	22.2	55	11.6**
무	98	77.8	418	88.4
계	126	100.0	473	100.0

** P<0.01

다. 주거형태는 기숙사 거주자가 25.0%로, 자취, 하숙 및 부모와 동거, 각각 11.1% 및 9.7%에 비하여 성행위 경험률이 높았다. 부의 교육정도는 무학이 20.8%, 대졸이 12.1%로 부의 교육 정도가 낮을수록 높은 성행위 경험률을 나타내었다. 모의 교육정도는 무학이 16.7%였고 대졸이 31.3%였다. 부모의 결혼상태는 동거하지 않는 경우의 성행위 경험률이 21.4%로 동거하는 경우

12.5%에 비하여 높았다(표 12).

성교육 필요성 인지 및 요구에 대한 조사에서 보면,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A군이 96.9%, B군이 90.4%, C군이 86.8% 응답하여 각군 모두 성교육에 대한 강한 필요성을 나타냈다.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불충분하다는 A군 80.6%, B군 82.9%, C군 62.4%로 각군 모두 불만족을 나타냈고, 성교육을 할 때 가장 알고 싶은 내용으로는 이성교제에 대하여가 A군 44.7%, B군 45.4%, C군 56.4%로 가장 높은 요구를 나타냈고, 임신과 출산에 대하여가 그 다음 순으로 높았다. 성교육의 실시 시기에 대하여는 국 5~6학년이 A군 46.8%, B군 40.1%, C군 36.3%로 모두 높은 율을 보였다(표 13).

IV. 고 찰

청소년들의 삶을 건전하게 영위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 건전한 태도, 성에 대한 도덕적 판단능력 같은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자신이 겪고 있는 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또한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성문화 정화에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사회 발달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와 교육현장에서의 성문제에 대한 관심과 평가는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인문계, 실업계 및 산업체 부설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지식 정도, 태도 및 성경험 유무와 성교육 요구정도를 조사하여 앞으로 효율적인 성교육 계획 및 수행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자 시도되었다. 조사대상은 일부지역의 인문계, 실업계, 산업체별 각 2개 학교에 국한하여 설문지에 의한 응답을 근거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확대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상 여고생중 인문계 여고생의 78.9%가 평균연령이 17세이었고, 실업계 및 산업체 부설 여고생은 18세 이상이 인문계 여고생보다 많았다. 이는 김은희(1990)의 조사보고에서도 나타난 바 학교별 및 지역별 여고생의 평균 연령의 차가 있다는 결과와 같았으며 실업계 및 산업체 여고생의 경우는 졸업후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표 1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행위 경험과의 관련성

	성행위경험 유		성행위경험 무		계
	인수	%	인수	%	
연령					
16세 이하	15	18.3	67	81.7	82
17세	47	13.5	301	86.5	348
18세 이상	24	14.2	145	85.8	169
주 성장지					
대구	41	11.4	320	88.6	361**
경북	45	18.9	193	81.1	238
주거형태					
부모와 동거	39	9.7	362	90.3	401**
자취, 하숙	2	11.1	16	88.9	18
기숙사	45	25.0	135	75.0	180
부의 교육 정도					
무학	5	20.8	19	79.2	24
국졸	19	15.2	106	84.8	125
중·고졸	54	14.1	330	85.9	384
대졸	8	12.1	58	87.9	66
모의 교육 정도					
무학	4	16.7	20	83.3	24
국졸	32	15.1	180	84.9	212
중·고졸	45	13.0	302	87.0	347
대졸	5	31.3	11	68.7	16
부모의 결혼 상태					
동거	59	12.5	414	87.5	473**
이혼, 별거	27	21.4	99	78.6	126

** P(0.01)

근무의욕 고취와 생산성 향상을 병행하기 위한 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형편에 따라 입학하므로 평균연령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의 성과 관련된 지식수준은 전체적으로는 높은 수준(평균 9.26)이었으며 인문계, 실업계 및 산업체 부설학교 여고생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은 군과 부모의 학력이 높은 군에서 지식 수준이 높았다. 학교별로는 인문계가 실업계나 산업체 부설학교 보다 더 높았으며, 주 성장지가 대구일 때와 부모와 동거할 때 및 부모가 모두 생존하여 동거하는 경우가 성지식이 더

높은 경향이였다. 이는 배남숙(1983)과 이은정(1990) 등의 여고생의 성지식 조사 보고에서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어 학교별, 지역별, 부모와의 동거 유무 등에서 여고생의 성에 대한 지식 수준은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성지식 내용별 정답률은 전체적으로 임신의 의미를 가장 잘 알고(95.3%)있었으며, 성병의 종류(94.8%), 분만과정 그리고 배란과정에 대한 응답률 순으로 높았으며,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항목은 임신과 월경과의 관계로서, 알고 있는 학생은 3.8%에 불과하였으며, 가족계획방법(17.0%), 성병의 경과(38.4%) 및 월경에

표 13. 교육 필요성 인지 및 요구

	A군		B군		C군		계	
	인수	%	인수	%	인수	%	인수	%
필요성								
필요하다	184	96.9	185	90.4	177	86.8	546	91.2**
필요없다	1	0.5	1	0.4	6	2.9	8	1.3
모르겠다	5	2.6	19	9.2	21	10.3	45	7.5
만족도								
충분하다	1	0.5	8	3.9	53	25.9	62	10.4**
불충분하다	153	80.6	170	82.9	127	62.4	450	75.1
모르겠다	36	18.9	27	13.2	24	11.7	87	14.5
가장 알고 싶은 내용								
무응답	1	0.5	2	1.0	1	0.5	4	0.7
월경에 대하여	6	3.2	9	4.4	9	4.4	24	4.0
이성교제에 대하여	85	44.7	93	45.4	115	56.4	293	48.9
임신과 출산에 대하여	63	33.2	67	32.6	54	26.5	184	30.7
여성의 신체구조에 대하여	13	6.8	8	4.0	12	5.8	33	5.5
남성의 신체구조에 대하여	22	11.6	26	12.6	13	6.4	61	10.2
실시시기								
무응답	-	-	1	0.5	2	1.0	3	0.5
국 1~4	48	25.3	46	22.4	36	17.6	130	21.7
국 5~6	89	46.8	82	40.1	74	36.3	245	40.9
중학교	46	24.2	62	30.2	72	35.3	180	30.1
고등학교	7	3.7	14	6.8	20	9.8	41	6.8
계	190	100.0	205	100.0	204	100.0	599	100.0

** P<0.01

대한 문항의 응답률(69.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은희(1990)의 조사에서 여성생리에 대한 문항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73.4%)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조사와는 차이가 있었으며, 이은정(1990)의 조사에서 가족계획관련 문항의 정답률이 14.7%로 본 연구보다 약간 낮은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응답률의 차이는 상기에서의 조사대상이 여고생 전학년층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교과목 학습단계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따라서 성에 대한 바르지 못한 정보나 낮은 정답률을 보인 항목에 대해서는 정보전달교육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윤리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 즉 “성은 신성하고 아름답다”, “결혼전 순결은 반드시 지켜야 한

다” 및 “인간의 성욕은 이성으로써 조절해야 한다”라는 각 항목에 긍정적 태도를 나타낸 여고생이 실업계가 8.2%로 가장 많았고, 산업체 6.8% 및 인문계 6.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결과는 방미라(1990)의 성교육 효과 보고에서의 찬성률 43.9%에 비해 모두 낮았는데, 보건교육후의 찬성률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성교제 및 인공유산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실업계 여고생의 34.0%가 긍정적 태도를 보여, 이성교제에 대한 인문계 여고생의 30.6% 및 산업체 여고생의 22.2%가 긍정적 태도를 나타낸 것보다 더 높았으며, 인공유산도 인문계 여고생의 29.5% 및 산업체 여고생의 26.9%보다 유의하게 높은 비율이었고 이는 방미라(1990)의 여고생 대상 이성교제에 대한 조사에서의 찬성률 66.5%보다 낮았다.

여고생의 성에 대한 태도와 자아개념 관계 연구(양미선 1985)에서 이성교제에 대한 교육 정도가 높은 군에서 찬성률이 더 높은 경향으로 나타나 올바른 성지식이 많아야면 긍정적 태도가 형성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일반적 특성별 성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연령이 높은 군에서 성윤리 및 인공유산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더 많이 나타내어 연령이 높아지면서 성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성 문화와 관련된 정보에 노출되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자위행위를 알고 있는 여학생은 인문계, 실업계 및 산업체 부설학교 순이었으며 전체 여고생의 21.0%가 자위행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산업체, 인문계 및 실업계 학생 순으로 높았으며, 양선희(1983)의 여학생의 자위행위 경험률 8.8%에 비해서는 매우 높았다. 그러나 자위행위를 모른다고 응답한 학생이 산업체 52.5%, 실업계 47.4% 및 인문계 41.6%로 나타나 올바른 정보 및 태도형성이 시급하다 하겠다.

대상자의 이성교제 경험률은 전체 여고생의 68.9%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성교제 항목중 성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학생이 14.4%였으며, 이 중 산업체 부설학교 여고생이 24.5%로 가장 많았고 실업계 및 인문계 여고생 순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양선희(1983)의 남자 고등학생의 성교 경험을 25.7%보다는 낮았으나 산업체 부설학교 여고생과는 유사한 결과이었다.

그러나 여고생의 성교 경험률 조사에서 나타난 바 구분석(1975)의 2.9%, 김명(1979)의 3.0%, 윤귀임(1982)의 3.0%, 성영자(1984)의 2.4% 및 배남숙(1983)의 3.7%보다는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년도별 증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성교 경험률의 증가는 청소년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 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 학업 성적의 저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및 성에 대한 바르지 못한 정보나 태도 등으로 각종 성문란이나 범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증가요인은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보건교육 문제로 제기할 수 있겠다.

성교 경험과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에서 성교 경험은 16세 이상이 과반수이나 15세 이하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고 특히, 여성의 제2차 급성장기인 12세 이하에서도 실업계 및 산업체 부설 여고생의 성교 경험률이 높아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이 요망된다.

성교 경험 동기를 보면 경험여고생의 과반수가 타의적으로 성교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교 경험 대상자도 평소 사귀는 남자 친구나 안면이 있는 사람과의 성교 행위가 많아 사랑의 감정으로써가 아닌 보편적 상황에서도 성교 행위는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가족과의 성교(1.5%), 전혀 모르는 사람(1.3%), 및 친척(0.2%)과도 실제적으로 성교 경험이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설문 응답은 그 특성상 은폐의 경향이 더 많다는 지금까지의 보고를 참고하더라도 더 많은 수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성 행위 경험과 일반적 특성과의 관련성으로는 주 성장지, 주거형태, 부모의 결혼 상태에 따라 성행위 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성영자(1984)는 성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모의 교육 정도가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령 및 모의 교육 정도와 성행위 경험과는 관련성이 없었다.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A군 96.9%, B군 90.4%, C군 86.8%로 각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방미라(1990)의 필요성 인지도 94.2%와 비슷하였고 김원근(1961)의 인지도 75% 및 김귀희(1986)의 보고에서의 86.6%보다는 높아, 이는 조사 년도의 차이로 보여지며 최근에 와서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성교육의 만족도는 A, B, C 각 군이 불충분하다에 80.6%, 82.9%, 62.4%를 나타냈고 충분하다는 A군이 0.5%, B군이 3.9%, C군이 25.9%였는데 이는 양선희(1983)의 성교육 필요성 77.1%, 만족도 16.6%에 비해 만족도는 낮았고 필요성은 증가되었다. 또한 가장 알고 싶은 내용은 이성교제에 대하여가 A군 44.7%, B군 45.4%, C군이 56.4%로 가장 높았다. 이는 김귀희(1986)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비슷했다.

성교육의 실시시기는 국민학교 5~6학년이 A군 46.8%, B군 40.1%, C군 36.3%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이은정(1990)의 조사 결과와 비슷하였으며 성교육은 조기에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체계적인 교육기회를 통해 주어질 때, 일반 교과목과 다른 내용 즉, 자신들의 성적 흥미와 관련이 있는 생식생리나 임신과정과 같은 성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학생으로부터의 호응도가 높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문제를 비교적

자유롭게 표출해 낼 수 있었다는 보고(방미라 1990)나 성욕이나 성충동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방법으로 전이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정, 학교 및 사회집단의 적절한 환경조성이 청소년 욕구불만을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Conelia와 Aug, 1973; Mandetta와 Nancy 1974; Lester와 Cox, 1988)에서의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상기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문제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과 올바른 성윤리관 형성 및 이성교제를 유도하기 위하여는, 첫째, 건전한 가족 중심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 형성 및 올바른 성생활이 부모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기 시작 시기인 국민학교 고학년 교과과정이나 중학교 교과과정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올바른 이성관을 갖게하여 긍정적이고 건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관리가 바람직하다 하겠다.

V. 요 약

본 조사는 1992년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대구직할시 소재 인문계, 실업계 및 산업체 부설 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 599명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일반적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필요성과 요구정도를 자기기입식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여고생의 성에 대한 지식 정도는 평균 9.26으로 높았으며 인문계 여고생이 실업계 및 산업체 부설 여자고등학교 학생보다 더 높았다($P < 0.05$).

성지식이 '상'인 군에서 학교별로는 인문계가 연령이 많은 군에서 그리고 주 성장지가 대구인 경우 타 항목보다 성지식 평균은 유의하게 높았다. 항목별 성지식 정도는 전체 여고생의 95.3%가 임신 성립 과정에 대해서 정답률을 나타내 가장 많았고 성병 94.8%, 분만과정 90.2% 순이었으며 가장 정답률이 낮은 항목은 임신과 월경과의 관계로 3.8%에 불과했다.

성윤리에 대해서는 실업계 여고생이 산업체 및 인문계 여고생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으며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실업계, 인문계 및 산업체 여고생 순이었고, 인공유산에 대해서는 실업계, 산업체 및 인문계 여고생 순으로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대상 여고생의 이성교제 경험률은 68.9%이었으며 C군, B군, A군 순이었다. 이 중 성행위 즉, 성교경험률은 14.4%를 나타냈고 16세 이하 때 경험률이 6.0%를, 경험동기는 타의적이 8.9%, 경험대상은 남자 친구가 6.0%, 평소 안면이 있는 사람(5.9%) 순이었다. 가족이나 친척이 1.7%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성교 경험도 1.3%를 나타냈다.

성교육 필요성 인지는 전체 여고생의 91.2%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현재 성교육에 대해 75.1%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알고 싶은 내용은 이성 교제에 대해서 48.9%이었고 임신과 출산, 인체구조 순이었으며, 언제부터 배우기를 원하는 가에 40.9%가 국민학교 5학년 이후부터라고 응답하였다.

참 고 문 헌

1. 구본석, 이성교제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75, p. 1~20.
2. 김계숙,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교육, 대한간호, 28(5) : 24~27, 1989.
3. 김귀희, 일부 고등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교육 요구도,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1986, p. 1~23.
4. 김명, 대도시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지식,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39(3) : 163~170, 1980.
5. 김상옥, 일부 중학생의 성에 대한 의식 및 행태조사, 석사학위 논문,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1991, p. 1~48.
6. 김성훈, 고등학교 성교육 실험수업 결과 보고, 교유개발, 7(6) : 62~68, 1985.
7. 김원곤, 중·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성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공중보건 잡지, 6(1) : 188~199, 1969.
8. 김은희, 서울지역 여자 상업고등학교의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 학교보건 학회지, 4(2) : 100~118, 1990.
9. 김한경, 남정자, 한혜경, 한국 청소년들의 생식, 보건에 관한 연구(I), 한국인구보건 연구원보, 1988, p. 5~15.
10. 노미연, 윤정희, 이필영, 정명교, 추미호, 한미란, 학

- 교보건업무를 위한 참고 자료집(중등편), 서울 특별시 양호교사회, 서울, 1988, p. 278~287.
11. 방미라, 성교육이 여고생의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미친 효과,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1990, p. 1~20.
 12. 배남숙, 서울시내 실업계 여고생들의 성지식, 태도 및 행위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83, p. 1~18.
 13. 성영자, 남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과 상관 변인에 관한 분석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84, p. 1~17.
 14. 양미선, 여고생들의 자아개념, 신체상 및 성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연구,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1985, p. 1~38.
 15. 양선희, 일부 도시지역 남녀 고등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의 실태와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44(2) : 113~123, 1983.
 16. 원대식, 고등학교 성교육 범위설정을 위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0, p. 1~23.
 17. 윤귀임, 남녀 고교생의 성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1982, p. 1~16.
 18. 이귀현, 성교육 후 일개 고등학교 여학생의 성에 관한 태도 및 지식 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85, p. 1~18.
 19. 이은정, 고교생과 고교생 학부모의 성지식 및 태도, 성교육 요구시기에 대한 조사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1) : 85~100, 1990.
 20. 홍창남, 오늘날의 윤리관과 성교육의 제 문제, 경기장학, 83 : 250~257, 1984.
 21. Carrel MA, Calderone MS, Principles basic to education for sexuality, J of School Health, 53(4) : 315~316, 1983.
 22. Cornelia W, Aug R, Sex education, American J of Nursing, 73(1) : 81~91, 1973.
 23. Lester B, Cox J, Involving nurses in public school sex education, J of School Health, 58(3) : 108~109, 1988.
 24. Mondetta A, Nancy W, Learning about human sexuality, Nursing Outlook, 22(8) : 525~527, 1974.

〈Abstract〉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Sex, Sexual Experience and Need of Sex Education of High School Girls in Taegu

Un Hee Kim, Mon Sook Jung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aegu, Korea)

To obtain information about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sex, sexual experience and need of sex education,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599 students who were attended in 2nd grade of 2 girls' high schools(A group : 190 girls), 2 vocational girls' high schools(B group : 205 girls), and 2 special girls' high school attached to industrial company(C group : 204 girls) in Taegu city between 20th and 25th April 1992.

Mean score of knowledge toward sex of the total was 9.3. Mean score of A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B and C groups.

Among the total students, vocational high school girls were the highest affirmative attitude towards the acquaintance and relationship with the other sex, and the next was special high school girls. Students of B group assumed the highest negative attitude towards artificial abortion, and the lowest was A group.

Among the respondent girls, 31.1% did not experienced in the acquaintance and relationship with the other sex and 86 girls(14.4%) had experience with sexual affairs.

Most of girls(96.9% of A group, 90.4% of B group and 86.8% of C group) agreed to necessity of sex education, and answered that current education on sex was insufficient to them(80.6% of A group, 82.6% of B group and 62.4% of C group).

Among what the surveyed girls wanted to know about knowledge towards sex, they showed the highest interest on the acquaintance and relationship with the other sex(A group : 44.7%, B group : 45.4%, C group : 56.4%). And they showed the second highest interest on pregnancy and delivery(A group : 33.2%, B group : 32.6%, C group : 26.5%). There was no unique difference among each surveying item.

Most of the students(A group : 46.8%, B group : 40.1%, C group : 36.3%) thought it better that the time they wanted to get education on sex in 5th or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s and to have a regular curriculum on sex education.